



다카야마 거리의 양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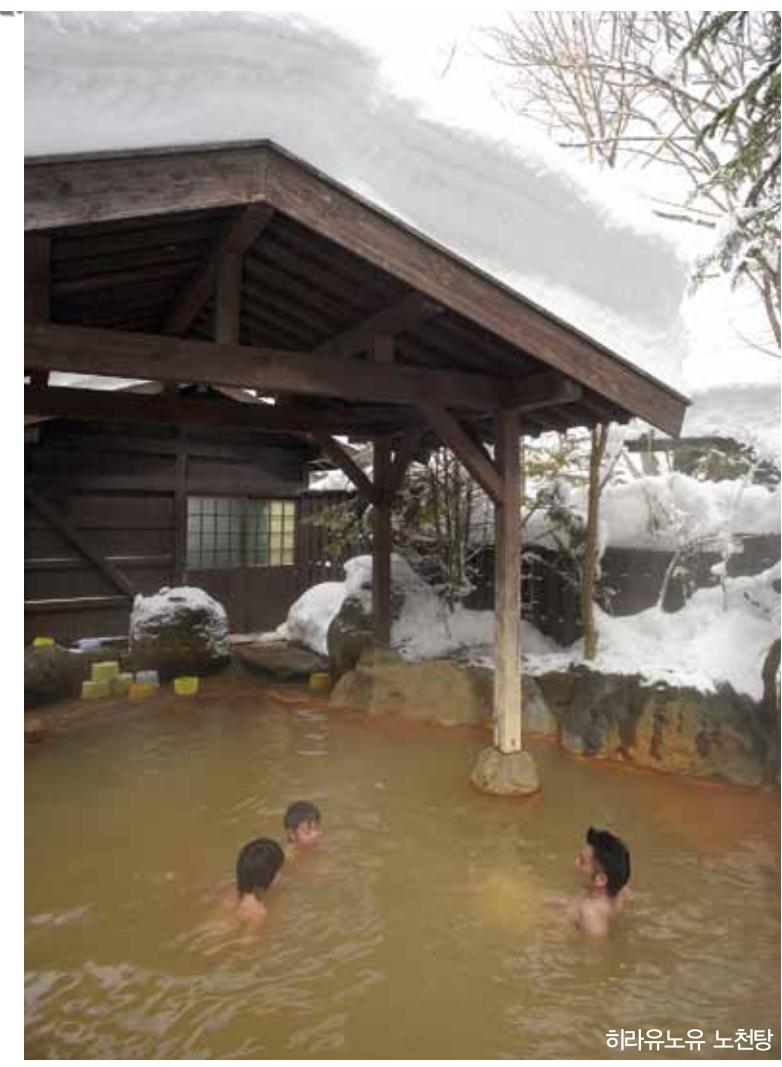


히다노사토



여행정보

기후현까지는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다수의 정기편이 취항중인 나고야 주부국제공항이 관문이다. 디카야마와 개로온천까지는 JR나 고야역에서 JR특급열차 히다호를 타면 별도의 환승없이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 JR디카야마역까지는 나고야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오쿠히다온천을(www.okuhida.or.jp)까지는 JR디카야마역에서 정기노선버스인 노우버스(www.nouibus.co.jp)가 5개 온천마을을 상시 순환운행하고 있고, 각 온천마을의 주요 숙박시설 앞에 버스 정류장이 마련되어 디카야마를 거점으로 하는 개인 여행자라도 어렵지 않게 오쿠히다온천을 여행할 수 있다. 소요시간은 초일인 히라유온천까지는 약 1시간, 가장 끝에 자리한 신호타카온천까지는 15분이 더 소요된다. 신호타카온천에 자리한 신호타카 로프웨이(shinhotaka-ropeway.jp)요금은 제 1로프웨이 및 제 2로프웨이 통합권이 약 2,900엔이며 연중무휴로 영업한다.



히라유온천 노천탕

이다. 익숙한 로프웨이가 2층으로 구성되어 보다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경쟁률 높은 창가 층 전망도 2배로 확대되어 2층 규모의 매캐니즘적인 흥미에 더해 절경을 만끽하는 즐거움까지 배가 된다.

로프웨이의 출발은 신호타카온천역에서 시작된다. 신호타카온천역(표고 1117m)에서 나베다이라공원역(표고 1305m)까지의 제 1로프웨이는 약 4분 동안 운행한다. 300m도 되지 않는 표고차이지만 만만히 바서는 곤란하다. 아찔한 정도의 급경사를 타고 오르는 만큼 시발역을 떠나 점점 멀어지는 신호타카온천역의 풍경이 짧지만 스릴넘친다.

아쉬운 4분이 지나 나베다이라공원역에 도착한 이후에는 다시 제 2로프웨이로의 환승이. 환승은 역을 빠져나와 도보로 제 2로프웨이의 시발역인 시라카바다이라역(표고 1308m)까지 걸어서 이동한다. 걷는다고 해도 단 2~3분 정도의 거리이고 환승선책로는 중부산악국립공원의 고산지대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 도리어 더 걷고 싶을 정도다.

제 2로프웨이부터는 일본에서 유일한 2층 로프웨이 곤돌라로 운행된다. 로프웨이의 1층과 2층은 별도 지정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높은 2층석이 추천이다.

제 2로프웨이는 종착역인 니시호타카입구역(표고 2156m)까지 7분간 천공의 유영을 이어간다. 흔치 않은 2층 로프웨이에 떴기 때문일까. 관광객 모두 와자지껄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여기저기 흥분어린 목소리가 중장년의 어른들까지 천진난만한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마법까지 부린다.

표고 2000미터를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일제히 로프웨이가 침목에 쌓인다. 겨울철 낮게 깔린 새하얀 구름을 뚫고 나자마자 온 세상이 하얀 백설의 설경이 맞이하는데, 작은 간판사가 터져나를 틀을 주지 않고 암도적인 얼음왕국의 비주얼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 말을 잃고 만다.

로프웨이에서의 절경만으로도 감동은 차고 넘칠듯한데 진짜 절경은 종점인 니시호타카입구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다. 발걸음이 닿은 곳은 니시호타카입구역 옥상전망대.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 계단을 통해 전망대에 오르는데, 옥상전망대에 오르는 순간 일본의 알프스와 불리우는 중부산악국립공원의 해발 3,000m급 명봉과 연산의 파노라마가 한 순간에 펼쳐오니 단 11분의 짧다면 짧은 로프웨이 공중산책에 2,900엔이라는 비용이 도리어 싸게 느껴질 정도다.

전망대 외에도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종점인 니시호타카입구역 주변으로는 고산지대의 풍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트레킹로를 걸한 산책로가 자리해 캐주얼한 감각의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제 1로프웨이에서 환승하는 제 2로프웨이의 시라카바다이라역 주변에는 등산객을 위한 '신호타카 비자이즈센터'를 중심으로 천연노천온천인 '가미타카라노우'도 자리하고 고산지대의 노천탕에서 힐링하는 특별한 경험까지 함께할

나고야 가마쿠라축제



말로 천국일 수밖에 없다.

5개 온천이 각각 가진 풍치를 즐기는 것 역시 오쿠히다온천마을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오쿠히다온천마을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하고 이곳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오쿠히다의 중심적인 존재로 자리한 '히라유온천'을 시작으로, 산골마을의 소박한 풍경과 옛 고향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후쿠지온천', 역사와 전통에 최신의 온천시설이 결합된 '신히라유온천', 굽이굽이 산허리를 따라 흐르는 계곡과 강줄기가 인상적인 '도치오온천', 마지막으로 북알프스 등산의 관문이자 앞서 즐긴 신호타카로프웨이가 자리한 '신호타카온천' 까지 개성도 만점이니 어느 온천을 향할지 행복한 고민까지 더해진다.

선택이 어렵겠지만 가장 초기에 자리한 히라유온천이 온천료칸과 온천시설이 풍부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추천할만하다. 히라유온천은 노리쿠리다케 연봉에서 이어진 해발 1200미터에 위치한 온천으로, 오쿠히다의 5개 온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온천이다. 온천수의 온도는 최고 90도를 자랑하는 만큼 고온으로 별도의 가열이나 가수없이 용출되는 원천 그대로를 온천탕으로 흘려보내는 일본 전통의 젠센카페나가시(原泉かけ流し) 방식으로 운영되는 순도 100%의 천연온천이다. 온천수는 나트륨·단산수소·칼슘 등을 포함해 신경통이나 류마티즘,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어 마음의 치유는 물론 몸의 치료까지 더해주는 귀한 온천이다. 히라유온천 내에 크고 작은 22개의 온천

료칸 및 온천호텔이 자리하니 취향에 맞는 숙박시설을 골라 지역특산인 히다소고기가 더해진 기아세키요리를 즐기며 유유자적 노천탕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히라유온천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이색 공공온천시설도 있으니 온천애호가라면 즐거운 일탈을 꿈꾸어도 좋다.

추천시설은 가미노유(神の湯) 노천탕, 온천체험시설 히라유노모리(ひらゆの森), 그리고 온천마니아라면 반가운 비전의 노천탕인 히라유온천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 국내외관광객들이 앞 다퉈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다. 불투명한 활로빛 온천수가 매력으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카운터나 요금설정도 없어 돈통에 마음내기는 금액을 내면 충분하다. 사물을 덜붙여 1천엔을 내도 아깝지 않으니 온천마니아를 자처한다면 필히 밭길을 옮겨볼 가치가 참고고 넘친다.

온천에 더해 올 겨울 오쿠히다온천마을을 찾는 이라면 이제로운 겨울 이벤트도 함께 즐겨볼 일이다. 히라유온천은 오는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히다지역 3대 폭포로 인기인 히라유오오타카 폭포에서 '히라유오오타카 결빙축제'를 연다. 낚자 64m의 거대 폭포가 겨울철 오쿠히다의 혹한에 얼어붙어 거대 얼음기둥을 연출하고 몽환적인 경관조명까지 더해져 볼거리다.

신호타카 로프웨이가 자리한 신호타카온천에서는 '나고야 가마쿠라축제'가 펼쳐진다.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나고야원 이벤트광장 내에 크고 작은 가마쿠라일본식 눈집이 만들어지고 밤을 밝히는 촛불장식까지 더해져 환상적인 밤풍경을 연출하며, 가마쿠라 내부에서 술을 즐기는 '가마쿠라 바' 등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보고싶은 섬
가고싶은 섬

天草
아마쿠사

<http://www.t-island.jp/ko/>

Japan. Endless Discovery.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http://kumanago.jp/ko/>

구마모토현
熊本県

200마리의
돌고래가
서식!

돌고래 워칭

가이센돈 (해물덮밥)

마츠시마, 이와지마, 레이호쿠
코스

부드러운
바다의
별미!

규슈올레
3코스!